

부 록

사회적경제 연구회 토론요약

(사회적경제연구회 제1회 워크숍)

사회적경제의 이상과 현실

충청남도는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충남의 사회적경제를 연구하기 위한 전략과제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사회적경제연구회는 충남지역의 교수, 연구원, 지역전문가, 현장활동가들을 망라한 조직이다. 연구회 구성원간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 충남지역의 사회적경제의 실체가 있는지 이론과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하나씩 탐구해나가고자 한다. 이 글은 그 첫 워크숍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워크숍 개요

1. 목적

-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현실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2. 행사 개요

1) 일 시 : 2011년 3월 25일(금) 14:00~ 17:00

2)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3) 참석자 : 30명 내외

☐ 원내

- 박진도 원장님
- 송두범, 김종수, 김민숙, 홍은일(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임준홍(기획실)
- 김양중(지역경제연구부)
- 이관률, 이영옥(농촌농업연구부)
- 여형범(환경생태연구부)

☐ 원외

- 박영송(충청남도의회), 추욱(충청남도청) 외 20여명

4) 주요 내용

○ 주제발표 : 다른경제의 희망: 사회적경제, 연대경제, 민중경제

- 김신양(성공회대 교수)

- 사회적경제의 개념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역사, 개념, 이론적 근거)
- 사회적경제 왜 필요한가? 특히, 충남
- 사회적경제 실체는 있는가(대상과 유형, 생태계 구성요소 등)

○ 토론

- 연구회 회원 등 참석자 전원

● 사회적경제 개념의 다양성

사회적경제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다. 어떤 이들은 경제학의 일부분이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사회정책에 가깝다고도 한다. 1회 워크숍의 발제자인 김신양 박사는 이를 사회적경제, 연대경제, 민중경제로 나누어서 보고 통칭하여 '다른경제'라고 부른다.

•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는 19세기 막 태동한 자본주의의 급속한 진전으로 야만적인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농민, 노동자, 장인이 불평등과 탄압에 맞서 조직한 것이다. 당시 노동계층의기본적 욕구인 교육, 보건, 신용대출, 음식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었다. 현대에서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근간이 되었던 지역, 종교, 가족의 붕괴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보다 복잡하고 다양해져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사회적 결속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모든 이들은 서로 돕고 서로 연대한다. 우리는 운명공동체다”라는 말은 이를 잘 나타낸다.

• 연대경제

연대경제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경제민주화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연대경제는 오일쇼크와 더불어 시작된 경제위기와 복지국가의 위기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한편으론 68년 5월혁명 이후 형성된 세대의 대안적 삶의 모색도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 스스로 사회적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대경제는 형성된다.

연대적 서비스 조직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욕구를 발굴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조직하고 이들로 이루어진 의사결정 단위를 구성하여 지불능력이 없는 서비스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이 동원된다.

• 민중경제

민중경제는 자신의 노동력과 이용가능한 자원을 사용하여 물질적·비물질적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민중조직에 의해 개발되는 모든 경제활동 및 사회실현을 뜻한다. 주로 가난한 지역에 거주하는 민중집단이 결사하여 다양한 방식에 따라 노동이 이루어지는 생산,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아우르는 활동이다. 이는 보통 비공식적인 구조로 존재하며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호혜적 관계에서 활동의 근거를 찾는다.

김신양 박사는 결국 이러한 사회적경제는 민주적 연대성을 통한 재분배와 호혜적인 관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낸다고 한다. 그리고 새로운 보편적 연대의형태가 필요한데 그것은 '박애적 연대'와 '민주적 연대'라고 설명한다.

● 토론 요약

김신양 박사의 발제 후 청중들 간의 다양한 토론이 있어 지면을 빌어 소개한다.

• ‘사회적’의 의미

사회적이라는 것은 개인의 집합이 아닌 공동의 운영원리에서 개인의 이익을 공동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즉 공동의 이익이라는 것은 공동의 어떤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고 해서 common이라는 용어를 쓰지 collective를 쓰지 않는 것이다.

•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영역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나타난다. 공정무역, 민중교역, 아시아 민중기금 등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역의 다양한 교환체계를 활용하기도 하고 기존의 전통농업이나 환경문제를 결합시키기도 하는 새로운 활동의 등장은 기존의 단일한 법체계에서는 받아안기 힘들고 통합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경제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사회적경제는 독립적인 개인들이 서로 모여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라민 뱅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들끼리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라’라고 하는데 이 자체가 훌륭한 사회적 활동이 될 수가 있다.

• 사회적경제의 토양마련이 중요

사회적경제를 이루어 나가는데 처음부터 욕심을 내면 안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은 현재 노동통합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받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반, 시스템, 주변의 연대, 네트워크 이러한 토양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 시사점

첫 연구회 워크숍이었던 만큼 개념적인 혼란도 많았고 참석자의 이해 수준차이도 컸다. 하지만 이러한 첫 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이라는 형용사와 경제라는 명사가 합쳐진 일종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개념 안에는 역사적 맥락과 국가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적인 상황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는가? 또한 충남에서의 사회적경제의 실체는 어떠한 양태로 존재하는가? 그 실질적인 범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들이 앞으로 연구회를 진행하면서 찾아야 하는 숙제일 것이다. 그 해답을 찾을 때 충남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어렵פות하게나마 그릴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회정책으로 충남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연구회 제2회 워크숍)

사회적경제의 해외사례- 캐나다 퀘백을 중심으로

충청남도는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충남의 사회적경제를 연구하기 위한 전략과제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이 글은 그 두 번째 워크숍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두 번째 워크숍을 통해서 캐나다 퀘백의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었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특히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과 지역기금의 사례는 충청남도에서도 고민할 가치가 있다.

■ 워크숍 개요

1. 목적

- 캐나다 퀘백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실체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2. 행사 개요

1) 일 시 : 2011년 4월 1일(금) 14:00~ 17:00

2)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3) 참석자 : 20명 내외

□ 원내

- 박진도 원장님
- 송두범, 김중수, 김민숙, 홍은일(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임준홍(기획실)
- 김양중(지역경제연구부)
- 여형범(환경생태연구부)

□ 원외

- 추옥(충청남도청) 외 10여명

4) 주요 내용

○ 주제발표 :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시책추진 현황(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 송두범(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사회적경제의 해외사례- 캐나다 퀘백을 중심으로

- 이은애(Seed's 혁신지원단장)

○ 토론

- 지정 토론자 3명 외 연구회 회원 전원

● 충남의 사회적경제 시책추진현황

송두범 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충남형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현황에 대해 개괄하였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신청한 기업들의 문제점으로 4가지 지정요건을 구비한 기업이 매우 부족한 것을 지적한다. 또한 대상자들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개념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특히 사회적 목적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마을기업의 경우도 보조금의 사용용도 등 세부집행계획 및 자부담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고 보조금을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시설설치, 기자재구입 등의 용도로 신청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한다.

향후과제에 대해서는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대상사업자를 발굴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개별지원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증진과 공감대의 확산을 우선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캐나다 퀘백의 사회적경제의 형성

사회적경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각 국가의 역사와 상황에 따라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은애 단장은 캐나다 퀘백의 사례에 대해 다양한 행위자들의 유기적인 연대로 인해 사회적경제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발전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공동체주의가 사적기업 모델의 지배에 대한 진정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Galera(2004)는 협동조합의 다른 형태의 발전모델로 상호주의 모델, 사회적모델, 중간모델, 준공공성 모델을 제시한다. 상호주의모델은 엄격하게 조합원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 협동조합이라고 간주한다. 사회적모델은 협동조합을 지역사회의 이익에 보다 개방된 조직으로 설명한다. 중간모델은 협동조합을 규제하는 법률에 정의된 상호주의 개념이 협동조합의 상호적 본성과 사회적 기능까지 포함된 조직체로 간주한다. 마지막으로 준공공성 모델은 협동조합 조직을 공기업처럼 이해하고 그 지배원칙이 공공기관에 의해 규정받는다고 간주한다.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발전요인

첫째, 세계경제, 글로벌 기술의 발전이다. 경제적인 세계화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본래 근거지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을 때 오히려 협동조합은 '전 지구적 경제와 지역사회의 강한 관계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고민한다. 둘째, 인구학적 변화이다. 개인주의의 성장, 가족의 해체, 전

문직 청년들의 단독가구화 등으로 보건, 주거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욕구증가가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영향이다. 공공재정에 대한 예산삭감과 건강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늘어나는 욕구들을 결합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수단의 모색이 이루어졌다.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모델에 추가된 가치

- 협동조합들은 지역 활동가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 협동조합들은 자발적인 공동참여에 의존한다.
- 분할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협동조합들의 자본은 지역을 이탈할 수 없다.
- 일반적으로 협동조합들의 규모는 주변지역의 범위에 필적한다.
- 협동조합의 발전은 조합원들의 책임이며 1인 1표의 원칙에 대한 존중 속에 이루어진다.

이은애 단장은 캐나다 퀘백에서 이러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들이 발전한 것은 정부, 기업, 노동계, 사회경제영역, 비영리조직들을 통틀어서 모두 노력한 결과이었다고 본다. 특히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부처 간 연계와 조정을 통하여 수평적인 협력구조를 만들어 내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도 섹터 간의 조율기구가 필요한데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하였다. 특히 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맵핑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경제영역을 개발하고 사회적경제의 흐름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토론 요약

이은애 단장의 발제 후 청중들 간의 다양한 토론이 있어 지면을 빌어 소개한다.

• ‘연대’의 필요성

퀘백의 사회적경제를 위한 노력들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영역이 함께 구축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연대기금의 조성은 경제위기가 왔을 때 단순히 정부를 탓하고 재계를 탓할 문제가 아닌 노동계에서 스스로의 문제임으로 깨닫고 기금을 합의해 가는 구조에서 태동한 것이다.

•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신뢰

캐나다 퀘백의 사회적경제가 쫓 갈 수 있었던 것은 유럽의 이민의 역사 속에서 이미 1800년대부터 유럽의 협동조합 운동의 역사가 밀바탕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협동조합 새로운 가치에 대한 신뢰들이 쌓일 수 있었다.

- 충청남도에 적용 필요

해외사례의 내용 중 좋은 것은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 도에 영농조합이 굉장히 많은데 이를 어떻게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 영농조합들이 많이 신청했었는데 이익재분배 등의 문제 때문에 요건을 갖춰 진입하지 못하는 조합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풀어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

현재 정부가 인증하는 틀에서 센터도 메여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점은 빨리 극복이 되어야 한다. 극복이 되면 센터의 역할도 교육 및 컨설팅 수행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충남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시사점

두 번째 워크숍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특히 캐나다 퀘백의 사례는 충남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연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각 주요행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단순한 논의로는 부족하다. 실질적인 행위가 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기금 등 사회적경제의 구체적인 정책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다. 앞으로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러한 연대의 구조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사회적경제연구회 제3회 워크숍)

사회적경제의 해외사례- 영국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충청남도는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충남의 사회적경제를 연구하기 위한 전략과제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이 글은 그 세 번째 워크숍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세 번째 워크숍을 통해서 영국과 이탈리아의 사회적경제가 어떠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형성되었고 그 개별 주체들의 구성은 어떠한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영국의 사회적 투자와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운동은 충청남도에서도 고민할 가치가 있다.

■ 워크숍 개요

1. 목적

- 영국과 이탈리아의 사회적경제 사례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실체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2. 행사 개요

- 1) 일 시 : 2011년 4월 19일(화) 14:00~ 17:00
- 2)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 3) 참석자 : 20명 내외
 - 원내
 - 박진도 원장님
 - 송두범, 김중수, 김민숙, 홍은일(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임준홍(기획실)
 - 허남혁(농촌농업연구부)
 - 원외
 - 추옥(충청남도청) 외 10여명

4) 주요 내용

- 주제발표 : 영국 사회적경제의 이해
 - 조우석(소기업발전소 연구원)
- 이탈리아 사회적경제의 이해
 - 최혁진(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 토론
 - 지정 토론자 3명 외 연구회 회원 전원

● 영국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투자

희망제작소 소기업발전소의 조우석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하여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공공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맡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영국 정부 예산의 대부분은 이미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3섹터/사회적기업의 지원금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정부와 시민영역의 탄탄한 파트너십을 통해 구축되었다. 이는 현재 시민사회 영역이 매우 취약한 한국의 상황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직접지원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 시장의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영국의 사회투자는 사회와 환경에 이익을 주는 투자를 뜻한다. 특히 이는 사회적기업이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 자본'인 것이 특징이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지방정부는 사회투자의 보증인의 역할을 하고 민간으로부터 대출/투자를 유치하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이를 사회적기업에게 투자하여 효율적인 기업운영과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사회적기업은 이 과정에서 정부와 계약하고 민간으로 투자받기 위하여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과 사회적 가치를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최종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실행능력을 기본으로 한다.

●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운동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최혁진 이사는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운동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차이는 한국은 농협, 신협, 생협 등 개별법으로 나누어져 있고 협동조합 기본법이 나 일반법의 규정이 없는 반면 이탈리아는 일반법으로 협동조합을 규정하여 자유로운 설립이 가능하고, 1991년 사회적협동조합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라 설명한다. 트렌토 협동조합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트렌토 협동조합 현황

- 1890년 소비자협동조합 설립
- 1895년 트렌토협동조합연맹 설립
- 50만 인구 중 255,000명 조합원, 536개의 조합, 16,000명 종사자, 5,066명 임원, 연맹직원 174명, 24억유로매출(3조6천억원)
- 소비자, 신용, 농업, 일자리-사회서비스로 분야를 나누고 2차 컨소시엄 다양.
- 매출액의 3% 회비납부. 시-재정자립 100%
- 연맹차원의 행정, 법률, 세금, 설립, 컨설팅 등 지원하여 단위조합의 발전 유도

최혁진 이사는 협동조합간의 협동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이는 지역 내 대안경제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트렌토 시는 자급률이 100%이고 정부중심의 보호된 시장에 기대지 않고 스스

로 보호된 시장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보호된 시장 속에서 자주관리생산협동과 워크즈 콜렉티브의 실현가능성이 있었다.

● 토론 요약

발제 후 청중들 간의 다양한 토론이 있어 지면을 빌어 소개한다.

• 이탈리아 사례의 국내 적용 가능성

이탈리아 동부지역이나 산악지대에 특수한 문화적 환경들이 있고 상당히 연대의식이 강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애착이 강한 지역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가 발달했다는 특징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는, 결국은 사회적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회적경제의 시장을 형성하려고 하는 네트워크의 노력이 없으면 어렵다고 하는 측면입니다.

• 다중이해관계자 모델의 유용성

다중이해관계자 모델은 한국사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사회연대협동조합법은 노동자, 소비자, 지역기업, 심지어 공공재단까지도 다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조직이다. 외국에서도 현재 상황은 전통적인 협동조합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만 계속 성장하는 추세이다.

• 정부의 역할 중요

영국의 경우 더 컴팩트라는 사회연합을 만들면서 자기선언을 하게 됩니다. 공공이, 그리고 그간에 각종 민영화 조치 속에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사회권 보장에 대해서 약화시켜왔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또는 새로운 지역 고용의 대안으로 제3섹터와 함께하는 길을 가게 했고 공공에 대한 단순한 책임 이양이라는 차원에서 제3섹터에 사업권을 위탁했다기보다는 자기한계 같은 부분들을 선언하면서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그런 사회협약을 중앙단위에서 맺게 되고 그게 한 10년에 걸쳐서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계속 확산이 되어 왔다.

● 시사점

세 번째 워크숍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와 영국의 사례는 사회적경제의 두터운 역사 속에서 발전하였기 때문에 우리와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발표를 통해 우리도 다중이해관계자 즉, 정부, 기업, 시민영역 등이 상호 협력할 때 사회적경제의 지름길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느 영역이 다른 영역에 기대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경우 정부에게만 의존하려 하지 않고 그들 나름의 연대구조를 통해 상호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충남에서도 이렇게 사회적경제 단위끼리의 연대를 통해 튼튼한 기반을 확립할 때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연구회 제4회 워크숍)

사회적경제 사례연구- 일본과 성미산 마을만들기 사례 중심으로

충청남도는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충남의 사회적경제를 연구하기 위한 전략과제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이 글은 그 네 번째 워크숍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네 번째 워크숍을 통해서 일본의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와 성미산 마을만들기가 어떠한 역사를 거쳐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두 사례는 모두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로부터 시작되었다는데 더욱 의미가 있다.

■ 워크숍 개요

1. 목적

- 일본의 사회적경제와 성미산 마을만들기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충남의 사회적경제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함

2. 행사 개요

1) 일 시 : 2011년 5월 3일(화) 14:00~ 17:00

2)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3) 참석자 : 20명 내외

□ 원내

- 박진도 원장님
- 송두범, 김종수, 김민숙, 홍은일(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박철희(지역도시연구부)
- 박경(목원대학교, 객원연구위원)

□ 원외

- 박영송(충청남도의원) 외 10여명

4) 주요 내용

○ 주제발표

- ▷ 일본 사회적경제의 이해
 - 강내영(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
- ▷ 성미산 마을만들기의 이해
 - 조경민(마포희망나눔)

○ 토론

- 지정 토론자 3명 외 연구회 회원 전원

● 일본의 사회적경제

강내영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의 사회적경제는 고령자·장애인에 대한 개호복지, 지역재생, 마을만들기, 환경보호, 빈곤문제의 대두로 나타났다고 한다. 나아가 출생률 저하, 고령화의 진전으로 일본을 지지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영역' 구축의 중요한 근간으로 사회적경제를 기대하고 있다고 본다.

일본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조직으로 협동조합을 전면에 내세워 협동경제라고 바꾸어 말하기도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를 NPO활성화나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연대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공정무역, 유기농, 협동조합 그룹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아시아 연대 경제 포럼>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의 「사회적경제」에 해당하는 조직분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협동조합(각 협동조합법에 준거한 법인)
- 노동자 협동조합(근거 법이 없음)
- 워커즈컬렉티브(근거 법이 없음)
- 비영리조직(NPO법인,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 사회적기업(SB)
- 커뮤니티 비즈니스(CB) 등

● 성미산 마을만들기

성미산 마을만들기에 대해 조경민 대표의 발제가 있었다. 성미산 마을만들기는 국내에서도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어 그 성공원인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우선적으로 조경민 대표는 성미산 마을만들기는 호혜적 지역경제와 주민자치를 통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꿈꾸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사회적경제에 대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경제활동이라고 소개하였다. 조경민 대표가 소개하는 성미산 마을만들기의 원칙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자(당사자 중심): 지속가능성은 당사자의 결의와 시행착오로부터 온다.
2.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다: 합의는 대체로 낮은 차원에서 동의를 구하게 되고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된다.
3. 안되면 돌아가자: 유연하지만 한결같은 때 좋은 결과가 온다.
4. 부러우면 지는거다: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 변하면 좋다는 것을 보여주자

● 토론 요약

발제 후 청중들 간의 다양한 토론이 있어 지면을 빌어 소개한다.

• 일본의 사회적경제 구성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라든가 사회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PO라는 것이 필요했었는데 NPO라는 것이 어쨌든 지속가능한 부분에서 담보하기 힘들다는 의견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일종에 활용된 측면도 있는 것이고, 이것과는 별개로 생협, 복지클럽생협의 움직임이라든가, 노동자협동조합, 위커즈컬렉티브 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부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일본의 사회적 경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일본 사회적경제에서 배울 점

일본의 사회적경제 영역 총 정리 속에서 배울 것은 충청남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 보여준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경제 스펙트럼이 충남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

• 실질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사업 속에서 네트워크라는 것이 형성되어야지, 말로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 간의 강점이나 사업내용을 서로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안형네트워크로 사업들을 제안하거나 정보들을 공유시켜주거나 하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 성미산의 성공이유

저희는 성과지향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가치지향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몇의 좋은 인재들이나 마을을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로 달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보니까 일정정도의 목표에 도달해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 목표설정을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대부분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상화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원도 받아야하는 관점에서 보면 수치로 나오지 않으면 힘듭니다. 저는 가치를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에 대해서 계량화하는 것은 쉽습니다. 가치지향에 계량화방법을 스스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사점

일본의 사회적경제와 성미산 마을만들기 사례를 통하여 사회적경제의 실제적인 구성에 대해 더욱 잘 알 수 있었다. 두 사례를 통해 배울 점은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관의 일방적인 지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관의 지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지역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주체들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주체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질 때 사회적경제에 한걸음 나갈 수 있음을 배웠다. 다시 말해 지역에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고 이를 채워나가는 데에 먼저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돈을 어떻게 써야 하나는 질문에 발제자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결국 충청남도에서도 사업과 건물을 남기는 것보다는 지역의 리더를 키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됨을 배울 수 있다.

(사회적경제연구회 제5회 워크숍)

사회적경제 사례연구- 대구, 경북사례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분석을 중심으로

충청남도는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충남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충남의 사회적경제를 연구하기 위한 전략과제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이 글은 그 다섯 번째 워크숍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대구 경북의 사회적경제의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충남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분석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다.

■ 워크숍 개요

1. 목적

- 대구경북의 사회적경제를 살펴보고 충남 사회적경제 생태계 분석을 통해 충남의 사회적경제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함

2. 행사 개요

1) 일 시 : 2011년 6월 8일(수) 14:00~ 17:00

2)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3) 참석자 : 20명 내외

□ 원내

- 박진도 원장님
- 김중수, 이은애, 배혜정(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임준홍(기획조정실)

□ 원외

- 김제선(풀뿌리사람들) 외 10여명

4) 주요 내용

○ 주제발표

- ▷ 대구경북 사회적경제의 이해-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 류병윤(대구경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 ▷ 충남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분석
 - 이은애(Seed's 혁신사업단장)

○ 토론

- 지정 토론자 3명 외 연구회 회원 전원

● 대구경북 사회적경제의 이해

류병운 센터장은 사회적경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지역밀착형'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였다. 특히 사회적기업이 발전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밀착형이라는 개념이 규정되어야 하며, 또한 범위도 정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정부와 지방정부 주도로 사회적기업이 인증, 육성되는 현재의 현실에서는 광역시도 단위의 지역특성과 경제적, 사회적 현황이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한 방안으로서의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지역사회문제'의 특징을 파악, 분석해 비즈니스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지역의 여건과 현실에 적합한 업종 및 아이템의 발굴, 지역자원의 연계와 네트워크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전통과 정서의 회복 등 지역과 밀착한 사업 기회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진 분석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사회적경제의 일반현황을 살펴보았다. 대구경북지역의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의 주요 활동분야는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문화분야가 22%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교육서비스, 돌봄서비스, 식품분야로 각각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제조 8%, 환경 7%, 사회복지 4%, 재활용 2%, 가사·간병 2%이며, 기타가 13%였다.

또한 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는데 2010년 말 현재, 대구지역 13개의 생협에서 1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120여명의 직원을 고용해 200여억원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기업 못지않게 지역의 사회적경제 범위와 영향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충남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분석

이은애 단장은 두 번째 발제를 통해 충남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분석 결과를 공유하였다. 이는 전략과제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의 일부분으로 포함될 내용이다. 이를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조사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생태계 분석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예상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해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일원화된 지원 사업 추진 계획 수립
2. 해당기업에 대한 현황 자료 수집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조직 간 연계 상황과 인적, 물적 자원의 순환 구조 파악
3. 사회적경제 생태계 지도를 구축하고 발굴 육성 및 지원 정책과 개선 과제 도출

이은애 단장은 6개 사회적경제 단위의 분석을 통해 충남 전체를 분석하기 보다는 홍성군 홍동면과 같이 더 작은 단위에 집중함으로써 더 깊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경제조직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여 지자체와의 연결 네트워크나 자원동원의 구조 등을 파악하는게 필요하다고 보았다.

● 토론 요약

발제 후 청중들 간의 다양한 토론이 있어 지면을 빌어 소개한다.

• 구체적인 실체를 통한 사회적경제 이해 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모순이라고 이야기하는 에너지 위기나 식량위기, 기후적 위기 등 최소한 그런 지구적인 문제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영역으로서의 사회적경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관점 자체가 상실된 채로 이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캐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지원기관의 역할 중요

저희들도 권역별 지역기관으로서의 한계는 있지만 운동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주로 직원들을 반 정도는 사회복지학 전공한 사람으로 뽑아서 사회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스템화한다는 부분은, 문제를 제기해나가는 단계입니다. 모든 행사나 활동 중에 최 우선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고 우리 네트워크에서 이용하도록 의식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행사에서 소비되는 물품들을 가급적 그런 곳에서 구매합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일반 행사 비용의 상당부분은 사회적기업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마을 기업들도 소개하고 소비하기도 합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도 마을기업컨설팅 사업을 수행을 했고, 원래 대구광역시 마을기업을, 연구소 안에 별도의 주요 센터를 만들어서 연계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는 아니지만, 대구광역시나 경상북도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끊임없는 영향을 미친다고 자부 혹은 자평을 해봅니다.

• 재지역화가 사회적경제의 핵심이다.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세계화라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없다고 하더라도 바뀌나갈 수 있는 힘을 양성해 나가는 것이 그걸 지역화라고 얘기를 그럼 세계화에 대한 대안인 지역화를 달리 얘기한다면 우리 지역이 살아왔던 힘을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아 오는 것 그렇잖아요. 지역끼리 우리 잘살 수 있어 그 동안에 세계화라고 하면서 빼앗긴 것들 연대를 통해 찾아가자는 얘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키우자 그런 힘의 토대가 사회적경제라는 것이다.

• 지역사회 사회적경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조사방식의 변화 필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마을활력소를 하면서 이 방식은 아니겠다고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을 더 들여 봐야겠다고 했던 게 지금 여기 보시는 데로 처음에 6개를 뽑았을 때 제도영역 안에 들어와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 불리는 곳들을 딱 집어서 거기에 관계 집단이라든지, 연대정도 등 여러 가지로 읽어보려고 했었으나, 그렇게 대상을 잡다보니까 홍성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마을활력소가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으로는 홍성이 가져온 역사라든가 그 안에 어떤 목표가 있었고 막 분화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기업 형태로 보지만, 마을로 보서는 사실은 마을수준의 지원조직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다 들어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밥상이라든지 이런데는 오히려 자활의 역사라든가 설명과정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데, 그래서 홍성군전체로 해서 풀무학교가 만들어진 것, 농업에 대한 문제를 전망했던 것 그것에 대응과정들, 대신에 홍성군 홍동면 안에 풀무네트워크가 가진 폐쇄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다른 새로운 귀촌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어떤 것은 연결되어있고, 어떤 것은 고리가 끊겨있고 이쪽에 기대사항으로는 홍성에 역사를 주도해온 그룹들이 지역에 지원자이자, 업종네트워크에 주도자이자 여러 가지에 역할변화를 갖고 있을 것인데 조사과정에 사실로 드러나 졌으면 싶어서, 그러다가 보니까 대상의 변화를 가져와야 싶었던 것입니다.

● 시사점

다섯 번의 연구회 워크숍을 통해서도 아직까지 사회적경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사회적경제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개념적 실체를 파악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논의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사이다. 이는 충남에 사회적경제가 어떠한 양태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다. 조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 대한 명확한 사전이해 후 범위를 마을단위로 한정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을 통한 지역의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협동경제를 구성되는지, 그 주체들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사회적경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사회적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때 존재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결국 연대와 협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또다시 확인하였다.

(사회적경제연구회 제6회 워크숍)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충청남도는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충남의 사회적경제를 연구하기 위한 전략과제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이 글은 그 여섯 번째 워크숍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사회적경제 형성에 있어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알 수 있었다.

■ 워크숍 개요

1. 목적

- 사례연구를 통해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의 관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전략과제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함

2. 행사 개요

1) 일 시 : 2011년 7월 7일(목) 14:00~ 17:00

2)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3) 참석자 : 20명 내외

□ 원내

- 박진도 원장님
- 송두범, 김중수, 홍은일, 배혜정(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임준홍(기획조정실), 허남혁(농촌농업연구부), 이관률(농촌농업연구부)

□ 원외

- 최선희(씨즈 충남지부) 외 10여명

4) 주요 내용

○ 주제발표

▷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 하승우(지행 네트워크)

▷ 사회적경제와 주거협동조합

- 함영진(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부연구위원)

○ 토론

- 지정 토론자 3명 외 연구회 회원 전원

●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한국에서도 환상의 짝궁일까?

하승우 연구위원은 사회적경제에 있어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발제문을 통해 협동조합은 낡은 브랜드가 아니며 뜨는 브랜드라고 판단한다. 특히 소비자생협의 조합원수와 공급액 증가속도는 다른 사업보다 월등하게 빠르다고 한다. 현재 먹거리와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서 생협의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협동조합이 지역사회를 토대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국제협동조합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면서 협동조합은 가격과 품질, 환경, 윤리, 공정성의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 상황에서도 오히려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협동조합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더욱더 보편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 수십 년에 걸쳐 보다 중요해질 과제, 인류 생존조건에 근본적인 변화와 결부된 과제입니다. 여기에는 세계인구의 급속한 증가, 환경에 대한 압력의 증대, 극히 일부에게만 집중된 경제력, 세계도처에서 커뮤니티를 고민케 하는 다양한 위기, 지구 곳곳에서 현저해지는 빈곤의 심각화, 점차 빈발하는 민족분쟁 문제가 포함됩니다. 협동조합이 혼자의 힘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지만 해결을 위해 크게 공헌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고품질의 식품을 적절한 가격으로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지금까지 종종 해온 것처럼 환경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경제력을 보다 널리 공정하게 배분한다는 역사적 역할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각각이 위치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자조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서로 다른 문화, 종교, 정치적 신조를 가진 사람들이 화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⁶⁸⁾

향후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사회적 지향을 마련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한다. 사실 협동조합의 성공 여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다른 ‘사회적 시장’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만일 협동조합이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방식으로 성장한다면, 그 운동은 결국 기반을 스스로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협동조합‘운동’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나 레츠(LETS), 마을만들기운동 등을 통해, 그리고 친환경급식이나 로컬푸드만이 아니라 주거, 보험,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협동조합만이 아니라 협동조합 운동의 가치에 동의하는 노동조합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단체들이 이런 관계망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 만일 이런 관계망의 확대가 소유권을 약화시키고 공동소유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다면 협동조합운동 새로운 노동과 거래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다.

68) 쿠리모토 아키라(栗本 昭) 지음, 주영덕·김형미 옮김, 2009. 『21세기의 새로운 협동조합원칙: 일본과 세계 생협 10년 동안의 실천』, 생협전국연합회, 22~23쪽.

● 사회적기업과 지역 거버넌스 발전

함영진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거버넌스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 이유로 지역 내 기초지방정부들과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가 지역경제혁신과 지역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세계경제화에 대응하고 지역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발제자는 캐슬베일 주거협동조합(CVCHA)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CVCHA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후불량 주거의 문제, 지역 재생문제, 그리고 기존 건축물의 재활용문제 등에서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그리고 동시에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지역적인 특성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경제적, 사회적인 파급효과와 피드백을 고려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뿐 아니라 장기적인 효과,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의 달성과 관리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CVCHA는 지방자치단체와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지역협력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문제 해결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관련이 있는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때문에 지역주민뿐 아니라 다양한 민간단체와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사업체들도 함께 참여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과 커뮤니티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다양한 통로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로컬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첫째, 지역자산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 둘째, 사회적기업의 발전은 지역의 특성과 그 지역 주민의 요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등을 기반으로 지역조직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셋째, 사회적기업의 자활방안을 지역 자산과 연계하여 구상하고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에서 찾음. 넷째, 공익 및 사회적 목적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성과평가 실시이다.

● 토론 요약

발제 후 청중들 간의 다양한 토론이 있어 지면을 빌어 소개한다.

• 협동조합의 정신이 사회적기업으로 녹아드는 것 필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성 민우회 생협은 8원칙을 하나 만들어낸 것이 대안적 사회 창출을 위한 제 8원칙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드리면 우리 조합원은 자기 생활을 주체적으로 창조한다. 먹을거리, 성, 평등, 판결, 지역, 복지 등 생활 제반영역을 정부나 자본시장에

내맡기지 않고 조화와 협동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대안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뜻을 모으고 행동하며 실천한다. 생산하는 소비자로서 생활재를 생산자와 함께 만들고 구매력을 결집하고 예약운동 구입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의 구조를 일취 발전시키는 대안경제를 구축한다고 하고 하는 8원칙의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에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논의되면서 저는 협동조합의 원칙이 정신이 정체성이 사회적기업의 모태가 되길 사실은 바랍니다.

• 협동조합 간 연계네트워크 필요

사회적기업 자산단위 예를 들자면 특히 네트워킹 서로 주고받는 것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할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들에게도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망이 거미줄처럼 얽혀지고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대기업의 횡포나 어려움으로부터 서로의 협동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자체의 역할 중요

우리나라의 지자체에 대한 시스템화가 안됐고, 그러나 시스템화 되면 거기에 맞춰 굴러 가야되는데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정책이 바뀌고 정책의 주안점이 바뀌어나갔다는 점을 보면 아직까지는 좀 과도기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과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자체에 대한, 지자체 행정에서도 시스템 화되어 가고 좀 더 매니페스토 운동이 있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책임, 책무성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적경제를 이끌 사람을 키우는 것 중요

지금 제일 필요한 부분은 사람의 부분인데 사람을 어떻게 키워내고 발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같이할 젊은 사람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이론작업이었거든요. 그런 기업과 이런 꿈을 꾸는 청년들이나, 그런데 사회를 보면 암담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본인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보여주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회적경제에서 구조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충남 같은 경우, 저희는 교육 파트인데 교육 시킨다고 하지만 결국은 지역에서 내보내는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지역에 남아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야하는데 이 지역의 사회적기업을 담당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키워내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어야 되고,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 시사점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하부조직 중 하나인 협동조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회의 의의가 있다. 현재 각 부처의 정책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사회적경제의 주요 요소로 인정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생협 등 협동조합 조직이 사회적경제의 역사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과 더불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도 협동조합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식을 기반으로 성장해야 한다. 향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이러한 문제는 많은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논의된 것처럼 교육, 지역자산의 활용, 연대, 지역 거버넌스 등이 뒷받침 된다면 협동조합이 충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연구회 제7회 워크숍)

사회적경제와 지역기금형성

충청남도는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충남의 사회적경제를 연구하기 위한 전략과제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이 글은 그 일곱 번째 워크숍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기금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었다.

■ 워크숍 개요

1. 목적

- 지역기금형성 및 지역화폐의 사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전략과제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행사 개요

1) 일 시 : 2011년 7월 21일(목) 14:00~ 17:00

2)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3층 회의실

3) 참석자 : 20명 내외

□ 원내

- 송두범, 김종수, 김민숙, 배해정, 홍은일(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임준홍(기획조정실), 여형범(환경생태연구부)

□ 원외

- 최선희(씨즈 충남지부) 외 10여명

4) 주요 내용

○ 주제발표

▷ 사회적경제와 지역기금형성

- 이회수(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상임정책위원)

▷ 사회적경제와 지역화폐

- 김성훈(민들레의료생협 이사)

○ 토론

- 지정 토론자 3명 외 연구회 회원 전원

● 사회적경제와 지역기금 조성 방안

이희수 이사는 사회적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기금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였다.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의 핵심적인 성장동력은 기업가정신 계발과 금융인프라 구축인데 특히 조직의 특성에 맞는 자원-자본 시장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 금융은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한 일반 기업의 자본시장의 성격과 더불어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자본시장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해외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과정에서 초기에는 정부의 정책금융과 공동체개발을 위해 조성된 지역기금들이 큰 역할을 하면서 이후에 자본시장과 연계·발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초기단계에서 정부차원이든 민간차원이든 마중물 역할을 할 내셔널 펀드를 규모있게 조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의 재정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풀뿌리 공제회, 사회적 조직간의 컨소시엄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내 협동조합금융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성 있다.

사회적경제에 있어 사회적기업 금융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투자가)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제공하는 투자가로서의 역할
- 둘째, (혁신가)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금융프로그램과 소셜금융상품을 개발하는 혁신가로서의 역할
- 셋째, (가치평가전문가) 기업별, 프로젝트별 사회·경제적 성과에 대한 기대수익을 추정하고, 위험을 가격으로 전환하는 역할
- 넷째, (지역사회재건과 사회통합의 촉진자) 제도권 금융이 회피하는 낙후지역과 버팀경제(Bottom Economy)에 대한 소셜금융 제공으로 지역공동체사회의 재건과 소외그룹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역할

● 한발레츠의 사례로 보는 지역통화 운동의 가능성

김성훈 이사는 두 번째 발제를 통해 지역통화 운동의 실제와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지역통화운동이란 한마디로 말하자면 돈으로부터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발행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화된 자본주의 화폐경제 시스템의 폐해를 요약하자면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익추구집단에 의한 화폐발행권의 독점. 둘째, 이자 등으로 인한 부의 소수 집중과 양극화. 셋째, 화폐 부족으로 인한 대립과 경쟁관계의 심화이다. 이러한 독점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시작된 것이 지역통화운동의 시작이다.

발표사례인 한발레츠 역시 1997년 외환위기로부터 교훈을 얻어 시작하였듯이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지역통화에 대한 관심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한국사회에 일고 있는 사

회적경제운동의 대유행과 맞물려 전국의 지역통화단체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전국의 지역통화단체는 30여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아직 전해 듣지 못한 곳 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통화운동은 결국 협력을 통해 서로 이익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는 기존의 교환시장 논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었다고 한다. 즉,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호혜시장의 원리를 따르는 레츠를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던 것이다.

한발레츠의 경우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한의사가 가입하고 얼마 후 지역공동체 운동에 뜻을 둔 레스토랑이 가입하였다. 연이어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부가 가입하면서 선순환이 시작되었다. 또한 품앗이 운동을 통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서로 알게하였고 자연스럽게 거래가 시작되게 되었다. 레츠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색다른 시스템이 아니라, 전통사회속에서 품앗이나, 두레, 계 등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삶의 밑바탕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보살핌과 배려, 나눔과 협동으로 작동하는 사랑의 경제를 부활하는 운동인 것이다.

● 토론 요약

발제 후 청중들 간의 다양한 토론이 있어 지면을 빌어 소개한다.

• 지역화폐와 사회적경제와의 연계 가능성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런 거하고 연계시켜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사회적경제 기획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결사대 얘기하시면서 항상 문제 되는 게 소비자뿐만이 아닌 생산자도 들어와서 그 부분을 해줄 수 있는 한발 레츠의 열성적인 회원들의 네트워크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충남발전연구원이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큰 규모로 확대할 수 있을 거고, 한발레츠의 회원들이 원하는 수요가 어떤 것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서 그것을 잘 공급해줄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우선적으로 매칭을 시켜준다면 하면 열성적인 실무자 몇 분이 희생을 해가면서 하는 부분을 커버 해주면 서 물론 소규모의 공동체성 이런 건 퇴색될 수 있으나 지금보다 더 확장된 형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다.

•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순환경제를 건설할 수 있다.

레츠의 경우 지역 기반을 가진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지역기반이 가진 공동체가 남은 것은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의 교류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지역화폐를 하고 있던 조직들이 다 같이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실험적으로라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에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자원을 유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화폐를 쓰는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 작은 촉진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서로를 알아가는 좋은 관계망으로 자원을 교류하는 방식으로 관계 맺기를 해야 성과가 있습니다. 실제 경제생활하고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화폐범위를 넓게 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기금의 성격이 중요하다.

“지역기금도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대기업중심으로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곡된 상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고, 중간지원조직이 기업가정신이라든가 마인드와 비전을 주는 것과 또한 기금조성이라고 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기금을 누가 조성해서 누가 배분해주는 것인가에 문제, 마인드를 나눠주는 것과 같이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중간지원조직에서 역할들이 중요하고,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단순히 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과 관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잘 구축할 것인가? 기금조성도 마찬가지로라는 생각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매치시켜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 시사점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환구조를 만들어주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순환구조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로 지역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기금은 시작부터 재무구조가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지역기금이 충남 전체를 바라보는 기획이라면 마을단위에서는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사람들 간의 면대면 관계를 맺게 해주고 이렇게 쌓인 신뢰관계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이 태동될 수 있다. 단순히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드는 것을 넘어 지역공동체를 더욱 단단히 만들어 줄 수 있는 지역기금, 지역화폐를 충남에서 고민해야 할 때이다.

(사회적경제연구회 제8회 워크숍)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

충청남도는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충남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충남의 사회적경제를 연구하기 위한 전략과제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이 글은 그 여덟 번째 워크숍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 워크숍 개요

1. 목적

-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전략과제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행사 개요

1) 일 시 : 2011년 8월 10일(수) 14:00~ 17:00

2)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3) 참석자 : 20명 내외

□ 원내

- 송두범, 김중수, 김민숙, 배해정, 홍은일(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임준홍(기획조정실), 여형범(환경생태연구부)

□ 원외

- 김제선(풀뿌리사람들) 외 10여명

4) 주요 내용

○ 주제발표

▷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

- 이란희(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 사회적경제의 중간지원기관 사례연구-풀뿌리사람들의 사례

- 김제선(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 토론

- 지정 토론자 3명 외 연구회 회원 전원

●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

이란희 연구교수는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를 비교하면서 시민사회는 사회적경제의 토양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사실 사회적경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토대가 형성되기 시작되었다. 한국에서 민간에서 시작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은 87년 체제 이후 도시지역에서 시작된 생협운동, 2001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시작된 자활공동체사업, 2003년 노동부에서 시작된 사회적일자리사업,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을 통한 인증 사회적기업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이윤 배분의 엄격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영역과는 차이가 있다. 미국적 전통으로 볼 때, 제3섹터는 영리부문과 다른 비영리부문이고 국가와 구별되는 시민사회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유럽권은 미국식 분류를 따르지 않고, 중간적(intermediary)이고 다원적(pluralistic)인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히려 ‘제3섹터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적 영역(public sphere)의 일부’라는 가설을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발제자는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는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사회적경제의 자율성의 문제이다. 한국의 사회적경제 영역이 영국식 모델에 근접하다면, 국가(정부)와의 관계 또한 복잡미묘하게 이루어진다. 이때 사회적경제는 국가와 중첩되어 있어 중간적 조직, 보완적 조직으로 그 기능을 한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조직은 국가에 대한 자율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경제, 특히 사회적기업의 유사 영리민간기업화의 문제가 있다. 즉,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지키지 못할때는 일반영리기업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리민간기업과 같이 시장화에 집착하게 된다면, 사회적기업의 존재이유(rationale)는 무색해질 것이다. ‘사회적’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근저에 각각의 액터(국가-시장-시민사회)간 창 의와 협력이 어떠한지 보다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셋째, 사회적경제의 신뢰 및 건강성의 문제가 있다. 만약 사회적경제 조직이 회계부정 등 조직의 투명성 및 책무성을 저버리게 된다면, 시민들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불신, 더 나아가 시민사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비전의 확장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제도적 특성상 사회적경제 조직이 제도적 동형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담부서 설치 등을 시도해야 하고, 지방정부의 특색을 살린 지역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 사회적경제의 중간지원기관 사례연구-풀뿌리사람들의 사례

김제선 상임이사는 풀뿌리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 어떻게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지 잘 설명해 주었다. 발표를 통해 『풀뿌리』 자체적으로는 사회적경제 활동이 지역사회와 한국사회의 변화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이런 저런 일들에 참여해 온 작은 경험에 대한 성찰의 기회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풀뿌리의 설립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3지체운동 기획, 즉 정치적 중립과 권력감시로 대표되는 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 양극화의 심화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정립한다. 당시에 주로 논의된 지점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권력의 계층중립성의 확보,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따뜻한 운동, 운동의 심화 발전을 위한 분화였다고 한다.

이후 『풀뿌리』는 주민조직으로서 마을어린이도서관운동이 안착되면서, 풀뿌리운동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중간지원기관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005년 당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시민센터설립 논의, 2006년 희망제작소와 아름다운재단이 소개하였던 지역재단운동의 필요성에 자극을 받으면서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에 대한 준비가 본격화되었다. 풀뿌리운동사례에 대한 문헌조사와 ‘풀뿌리유랑단’이라는 이름으로 모범 사례 현장 방문 조사, 중간지원조직의 형태와 방식에 대한 ‘풀뿌리수다’ 워크숍을 거치면서 조직의 성격을 정립하였다. ‘도시형’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지역의 자원을 풀뿌리운동에 중개하는 지역재단형 운동, 아래로 부터의 참여와 협동, 활동가의 성장과 발전의 중시하는 대전형풀뿌리운동, 중간지원조직의 모색을 추진했다.

『풀뿌리』 지원사업의 기본 관점은 풀뿌리역량개발에 있다. 그 과정은 현재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기회를 찾도록 함으로써 잠재능력을 발휘하도록 기회를 갖게 함과 동시에 작은 성공을 축적하여 성취감을 갖고 지속적인 활동의 동기를 만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풀뿌리』의 사회적경제의 활동 지향은 다음과 같다.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정부 지원 의존형에 가까운 경우가 많은 반면에 지속가능한 실천을 위한 지역밀착형의 자주적 협동의 모델은 보편화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주체간의 협력을 통한 내부 시장의 활성화,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협동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경제 주체의 형성 지원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 토론 요약

발제 후 청중들 간의 다양한 토론이 있어 지면을 빌어 소개한다.

• 시민사회의 사회적경제 담론을 적극적으로 형성 필요

저는 시민사회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담론을 좀 적극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시민사회도 사회적경제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축소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구요. 제가 보는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최근에 정치권에서는 내년에 총선대선의 담론 자체가 재벌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가 새로운 화두로 드러날 건데,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지금의 경제시스템으로는 안된다. 경제 시스템 자체를 바꿔줘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시장실패, 시장에 포획된 정부의 가치를 변화시켜줘야 한다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의 현재 경제 시스템이 집중이면 분산을 해줘야되는 거고, 중앙 중심이면 지역으로 다시 편재해줘야 하는거고, 강자 중심에서 약자가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배타성으로 상성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사회적경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구요.

- 사회적경제 조직의 가치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립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이 그 사람들이 갖는 가치적인 것에 대한 욕구하고 경제적인 욕구를 합일시켜가는 과정으로써 봐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가치적인 것에 대한 욕구도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것에 대한 욕구도 높고요. 이중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들을 실제 자기 생활에서, 경제적 영역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과정을 설계해주고 실제 실용할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적경제의 시각은 충청권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사회적경제의 시각은 충청권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대전에서 생산된 사회서비스제품이 대전에서만 가지고는 좀 유지경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충청권이 되어 한다. 왜냐면 충남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산이나 천안에서 소비되는게 아니라 대전까지 포함된 권역에, 충청권역에 생태계 시장이 형성되고 활성화되어야 갈수 있다는거죠. 우리 이탈리아 다녀온 지역도 지역범위가 하나의 도시는 아니거든요.

- 사회적경제는 지역적인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공간에 따라 시민사회 구성이나 특성이 많이 다를텐데 공통된 것은 이중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활성화된 곳과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쪼개지는 것으로 딱 끝나는게 아니라 도시 지역도 이중화되어 있고 농촌지역도 이중화되어 있는 양상은 전체적으로 공간구조도 그렇고 삶의 양식이나 인간관계의 연결망이 상당부분 이중화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지역 내에서의 내부이중화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확인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도시지역은 공동체적 기반이 거의 없거든요. 같은 지역에 살지만 커뮤니티 의식이 없어요. 소비적 의식, 아파트도 자산으로써, 부동산 가치로 생각을 하지 주거공간으로써 공동체로써 생각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인구가 희박하고 제한되어있다고 하지만 그런 자체가 새로운 자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각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조사를 구체적으로 해야한다는 것도,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 누구랑 상의합니까 하는 것을 작은 커뮤니티를 가지고 상의하고 그래서 도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 도가 시행하고 싶은 정책을 유형화된 연결고리를 만들도록 조사를 해야합니다 했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 시사점

이번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의 관계에 대해 잘 살펴볼 수 있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시민사회를 바탕으로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이는 그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시민사회가 정부의 서비스 정책의 도구로 동원되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조직과 시민사회의 균열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비판을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 조직 스스로도 자정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다.

(사회적경제연구회 제9회 워크숍)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

충청남도는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충남의 사회적경제를 연구하기 위한 전략과제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이 글은 그 아홉 번째 워크숍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할 수 있었다.

■ 워크숍 개요

1. 목적

- 지역기금형성 및 지역화폐의 사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전략과제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행사 개요

1) 일 시 : 2011년 8월 31일(수) 14:00~ 17:00

2)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3) 참석자 : 20명 내외

□ 원내

- 송두범, 김중수, 배혜정, 홍은일(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여형범(환경생태연구부), 강마야(농업농촌연구부), 김양중(지역경제연구부)

□ 원외

- 최선희(씨즈 충남지부) 외 10여명

4) 주요 내용

○ 주제발표

-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
 - 유정규(지역재단 운영이사)
- ▷ 인적자원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 김동준(엔씨스콧 이사)

○ 토론

- 지정 토론자 3명 외 연구회 회원 전원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육성방향

유정규 박사는 발제를 통해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다. 그 전제 조건으로 사회적기업이 지역활성화에 유용한 대안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이 지역 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대됨으로써 지역전체의 경계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은 현재 농어촌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다. ①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 ②교육, 의료, 주택, 복지, 문화 등 사회서비스에서 도농간 격차 확대, ③농촌사회의 양극화(계층간 소득 격차 확대)와 농촌 취약계층의 증대, ④농촌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와 농촌의 역사문화자원의 훼손은 농어촌 활력저하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이다.

농촌의 내발적발전을 위해서도 사회적기업이 필요하다. ‘내발적 발전’이란 외부지원에 의한 개발이 주민참여의 결여, 지역자원의 고갈 등 환경문제 발생,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개념이며, 지역발전의 주체와 발전동력을 지역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전략이다. 즉,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발전의 성과가 지역 내로 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발적 발전전략에 관심의 증대는 그 추진주체로서 사회적기업에 관심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내발적 발전전략에서는 지역발전의 주체를 지역주도의 상향식 발전을 지향하는 주민참가와 자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의 협치조직(governance)이며, 발전의 동력은 원칙적으로 지역내부에서 찾으면서(driven from within) 외부와의 관계 중시하고, 지역 자원의 최대한 활용과 발전의 성과를 최대한 지역 내에 보전하는 발전전략을 추구하며,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통합적인 발전을 지향한다.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은 농어촌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추진해 나갈 핵심주체의 하나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은 농어촌 지역의 주민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사업 대상으로 한다. 즉,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든 활동이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이 활동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발제를 정리하며 발제자는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형식적 제약으로 인해 ‘사업적기업’이 되지 못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현행의 기관·조직 인증에서 사업(project)인증으로 인증방식을 바꾸고 셋째, 기존의 획일적인 지원방식과 지원규모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적극적인 육성이 선결되어야 하고 다섯째,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가칭)농어촌형 사회적기업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할 필요가 있다.

● 인적자원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김동준 박사는 발제를 통해 인적자원의 육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적자원을 통한 경쟁력이란 단순히 인적자원의 질적인 우수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보유한 자원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조직적 차원의 유무형의 자원을 총합한 개념이다 (Barney, 1991). 이러한 역량은 한 조직 내에서 일정한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외부로부터 우수한 인적자원의 유입과 유지를 통해 확보될 수 있는 인적자본의 우위 (human capital advantage)와 구분되는 인적자원 활용 프로세스의 우위 (human process advantage)라고도 말할 수 있다.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이것의 선행요인으로서 조직 내 신뢰 (trust), 조직후원의식 (POS;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공정성(justice) 등과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으며, 그것이 조직 또는 집단 내 협력과 조직몰입, 지식공유 등을 높이고, 과업수행을 위한 긍정적인 사회적·심리적 환경조성 등을 통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여주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가 조직구성원들이 그 조직과의 가치관 및 비전의 일치 여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더구나 사회적기업의 특성상 종업원들은 임금수준이나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에 대한 기대와 만족 보다는 그 사회적기업의 가치관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비전에 공감하여 조직에 참여하게 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목표나 비전의 공유에 대해 보다 만족감을 느낄 것으로 본다.

발제자는 발제를 통해 최근 사회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있어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을 높이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직시민행동은 공식적인 규정이나 보상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조직과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금전 보상이 충분하지 않고 다양한 보상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에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방법으로 조직시민행동에 주목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에서 중요한 비전공유와 가치관일치가 절차공정성, 조직후원인식, 신뢰가 조직시민행동을 높이는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 토론 요약

발제 후 청중들 간의 다양한 토론이 있어 지면을 빌어 소개한다.

• 사회적기업의 자부심이 경쟁력이다.

사회적기업이 인건비 지원 이런 것에서만이 아니고, 사회적기업들도 자부심 같은 것들도 좀 생겨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에는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했을 때 완전 싸구려 일자리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하면 돈은 조금 벌지만 사회적 목적으로 인해서 일하고 있다는, 그런 데서 일하고 있다는, 이게 쉽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지가 구축이 되고 아무나 하는 데가 아니라는 게 좀 있어요. 그게 또 경쟁력이기도 해요. 사회적기업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걸 배타적으

로 줄여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무조건 열었을 때 이런 부분이 훼손되는 면이 생길거다. 열심히 해온 사람들이 맥이 좀 풀리는 부분도 있을테고, 그 중에서 경쟁력을 갖춰 나간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쉬운 문제만은 아닐 것 같고요. 정책 고민하시는 곳에 계신 분들은 이런 면도 감안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조합적 방식이 필요하다.

농촌쪽에선 현장밀착형이라고 하기보다 지역밀착형이라고 하는 걸 더 잘 이해하시죠. 마을이 그걸 지향하고는 있는건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이 용어도 농촌지역에선 알아듣기가 어렵다는 거죠. 실제 농민들은 협동조합에 굉장히 익숙해져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 좀 들어서 자주적협동경제 이런 기반을 같이 한번 만들어봅시다 하고 일을 하고 있는거고요. 저희는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사에 기반을 좀 하자. 그리고 개인의 성과가 아닌, 조합적 방식으로 같이 모여서 일을 하자. 구멍가게들끼리 경쟁해봤자 살아남을 길이 없다, 그런 거구요. 직접 사업보다는 지원하는 형태로 각각 활동 단위들을 조직화하고 네트워크화하는 것이 저희 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예 사업을 하는 분들이 같이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디자인이 필요하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디자인조합이라고 해서 지원해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지역화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그런 장들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실제 자원, 굉장히 어렵다. 이걸 극복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는건데, 다들 말씀하시듯 인지도, 자원조달 문제, 농촌 지역 사람, 예산 구조, 전문성도 사실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흉내 정도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거구요.

•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가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거나 교육 및 컨설팅을 할 때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적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조직이 살아남는 길들이 또 보이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회적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새로운 것에 가치를 혼합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연대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또 다른 방식의 컨설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구요. 특히 농촌형에서는 마을에서 각 주체들 혹은 주민들이 서로 어떻게 연대하고 네트워크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또다른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시사점

이번 워크숍을 통해 충남의 현실에 맞는 농촌형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어렵
פות한 상을 그려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실제로 농촌에서는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기업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가 되고 있지 않다. 단순히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거나 인건비를 준다고 하니 참여하
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지역밀착형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이 사회적기업가 정신
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서로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
질 때 농촌의 사회적경제 단위들이 서로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연구회 제10회 워크숍)

충남사회적경제 생태계 분석

충청남도는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충남의 사회적경제를 연구하기 위한 전략과제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이 글은 그 열번째 워크숍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그동안 전략과제의 정리 내용, 즉 충남사회적경제 여건분석, 생태계분석, 정책수요분석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었다.

■ 워크숍 개요

1. 목적

-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대한 분석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전략과제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행사 개요

1) 일 시 : 2011년 9월 22일(목) 14:00~ 17:00

2)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3) 참석자 : 20명 내외

□ 원내

- 송두범, 김중수, 배혜정, 홍은일(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임준홍(기획조정실), 김양중(지역경제연구부), 여형범(환경생태연구부)

□ 원외

-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외 10여명

4) 주요 내용

○ 주제발표

- ▷ 충남사회적경제 여건분석
 - 김양중(충남발전연구원)
- ▷ 충남형 사회적기업 심층사례조사 결과분석 및 제언
 - 이은애(Seed's 이사장)
- ▷ 충남사회적경제 실태 및 정책수요분석
 - 임준홍(충남발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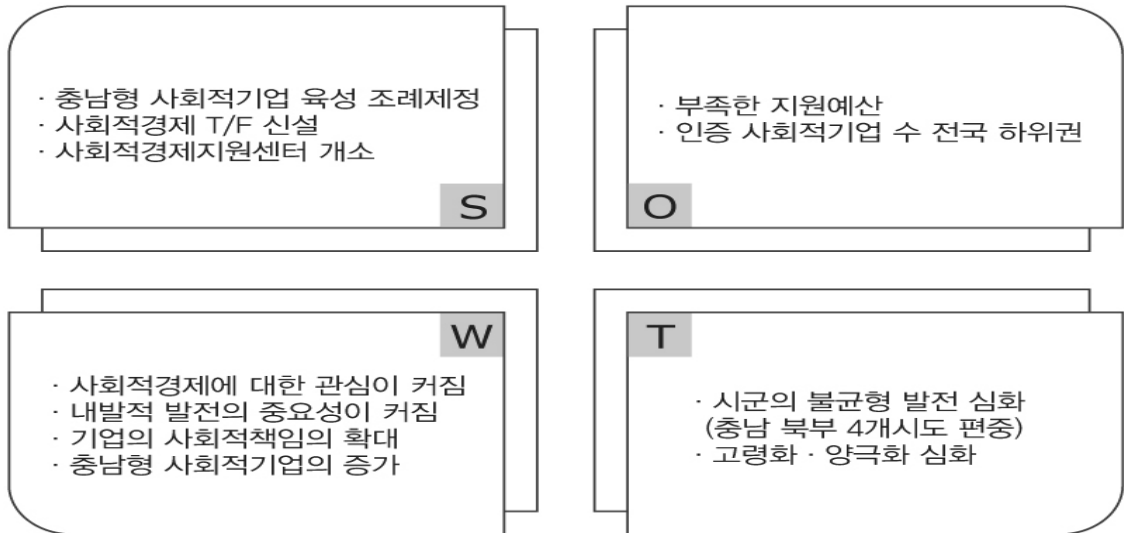
○ 토론

- 지정 토론자 3명 외 연구회 회원 전원

● 충남사회적경제 여건분석

김양중박사는 충남의 사회적경제 여건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SWAT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1> 충남 사회적경제 SWOT 분석



- 충남 사회적경제의 강점요인: 충남은 다른 시도보다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먼저 도입.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였고, 사회적경제 T/F를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충남발전연구원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소하였음
- 충남 사회적경제의 약점요인: 충남의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예산은 미비하며, 고용노동부의 인증 사회적기업 수 또한 전국 하위권
- 충남 사회적경제의 기회요인: 어느 때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적관심인 높아졌고, 외형적성장에 대한 비판으로 내발적 발전의 중요성과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중요성이 커짐
- 충남 사회적경제의 위기요인: 충남 16개 시군의 불균형 발전과 농업농촌의 고령화 및 양극화가 가속
- 충남 사회적경제의 위기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인식을 확대 하고 홍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타시도보다 한발 앞서 사회적경제 영역의 사회지표(사회적경제 D/B)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야 할 것임
- 아울러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사회적경제 예산의 확대와 계획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사회적경제 주체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주체간 네트워크 확대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하며 충남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민간단체들을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끌어들이어 육성하는 것이

필요

- 이들 단체들과 사회적기업 연계모델을 개발, 전문기관 상담·컨설팅 지원을 통해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 또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유도하는 방안도 별도로 마련해야 함

● 충남형 사회적기업 심층사례 조사 결과 분석 및 제언

이은애 이사장은 충남의 사회적기업의 심층사례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의 순환적 경제구조 구축에 대해 시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온양온천시장'은 지역의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직거래 방식으로 공급받기보다는 서울의 가락동 시장을 거쳐 지역 도매상을 통해 공급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내 농산물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직거래 하는 쪽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셋째, 지역과 전통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난장안관'은 전통문화 계승 보급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며 이를 통해 한편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넷째, 오랜 시민사회기반 활동에 바탕을 둔 협력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를 들어 '마을활력소'와 '천안KYC'는 그 자체로 특정 사업을 하는 조직이라기보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반 구축에 진력하는 간접 지원 단위이다. 교육과 네트워크 지원, 자원 및 정보 유통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출현하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 및 정책수요 분석

임준홍 박사는 사회적경제 실태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충남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들은 사회적경제에 대해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태는 조직별로 차이가 많이 있고, 실제 민간 보조가 끊어질 경우 84%가 힘들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경제 조직의 70.2%가 스스로 지역사회 연대가 활발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연대구조가 활발할수록 경영상태가 좋으며, 조직 활성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넷째,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역민 고용이 100%이며, 여성고용 비중이 높고 원재료의 구입과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판매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40%가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다양하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70%정도가 충남도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과 활동을 알고 있어 관심이 높다. 그리고 95%의 응답자가 충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토론 요약

발제 후 청중들 간의 다양한 토론이 있어 지면을 빌어 소개한다.

•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가치를 수행하는 원칙을 고수하되, 이 두 가지 가치를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좀 위험한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경제 내의 관계를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공관계에 있어서의 유대감, 시장경제의 유대 강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경제관계에서는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 그렇게 봤을 때 관과의 협치가 중요할 것 같고, 시장경제와의 관계에서 봤을 때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재정분야 쪽으로 사회적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경제의 수요구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적경제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하나는 충남에서 생각하는 충남도가 설정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의 정의가 명료하게 마무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정의가 다의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되서는 이걸 조례화 한다거나 정책화할 때 대상과 방식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논의하는 거와는 다르게, 조례화를 내면 3월쯤엔 시행해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한다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가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사회적기업과 다른 것과 같은 게 뭔지 분명히 드러나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업이 아닌 어떤 것까지 하겠다 하는 정책 목표 범위가 결정될수 있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사회적경제의 내부 생태계 형성 정책이 필요하다.

내부 시장 형성해서 발전하는 경로, 유형, 사례가 있고, 정부가 환경을 잘 조성해서 만들어가는 경로 과정이 있고, 시민자체에 의한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하는 과정이 있고, 이것이 다 섞인 복합모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구상들이 다 좋다고 나열하기보다는 어떤 강조점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초보적으로 관계적인 사회적경제 클러스트, 지역 권 내에서 상대적 자주성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할 수 있는 것인지, 사회적경제 주체가 광의로 보면 충남도 경우 800개까지 있거든요. 사회적경제 사업주체간에 공동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규모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 공생의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자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정돈하고 일정 제한도 좀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시사점

이번 워크숍을 통해 충남에 맞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조사 결과 충남의 사회적경제 여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충남의 현실에 맞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발표자, 토론자 모두 입을 모았다.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은 사회적경제 조직끼리의 네트워크이다.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간에 도울 수 있는 구조, 생태계를 만들어 줄 때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연구회 제11회 워크숍)

충남사회적경제 정책 제안

충청남도는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충남의 사회적경제를 연구하기 위한 전략과제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이 글은 올해의 마지막 워크숍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었다.

■ 워크숍 개요

1. 목적

- 충남사회적경제 정책의 방향과 실천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전략과제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행사 개요

- 1) 일 시 : 2011년 10월 13일(목) 14:00~ 17:00
- 2)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 3) 참석자 : 20명 내외

□ 원내

- 송두범, 김중수, 배혜정, 홍은일(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임준홍(기획조정실), 여형범(환경생태연구부)

□ 원외

- 김제선(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외 10여명

4) 주요 내용

○ 주제발표

- ▷ 충남형 사회적경제 정책의 모색
 - 김제선(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 ▷ 충남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
 - 최조순(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박사수료)

○ 토론

- 지정 토론자 3명 외 연구회 회원 전원

● 충남형 사회적경제정책의 모색

김제선 이사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을 제시하면서 그 의미와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까지 충남사회적경제연구회,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충남연 전략 과제로서 충남사회적경제발전전략 연구, 충남도정책자문위원회 사회적경제추진기획단의 과정을 거쳐 충남형 사회적경제의 상과 발전 전략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화를 위한 노력이 추진되어 왔다. 특히 사회적경제연구회의 논의는 낯선 사회적경제의 이상과 현실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사회적경제의 개념, 외국의 사례와 국내의 사례 연구, 충남지역의 특성과 정책 과제 진단, 분야별 사회적경제 사례로서 협동조합, 기금(펀드), 지역화폐,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김제선 이사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첫째, 사회적경제가 창출하고자 하는 공적가치가 무엇인지, 둘째, 충남형사회적기업 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 셋째, 기존 정부 지원 사회적경제 사업체는 어떻게 지속가능한 사업체로 육성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결국 사회적경제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기적 성과목표보다는 자발성과 호혜성의 규범을 지역사회에 정착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일 것이다. 이런 방식의 사회적경제가 뿌리 내리면 지역 차원에서 공동체적 연대감이 확고하게 구축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 사회 내부의 동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자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충남도의 사회적경제 분야 2012 예산편성의 동향은 이런 점에서 도정혁신의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 사회적경제로 설정하는 것 자체를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 예산 편성 동향에서 드러나는 정책결정 집단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수준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의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채워나갈 정교한 정책의 설계가 더욱 필요하다는 교훈은 분명하다. 그동안의 다양한 모색과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설계와 도민의 이해를 구하는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

최조순 박사는 사회적경제가 복지국가 및 시장실패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충남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몇 가지 주제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이다. 이는 사회적경제 역량 및 연대강화의 부문과 사회적경제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는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둘째, 사회적경제 기반 강화이다. 이는 크게 사회적경제를 통합 육성하는 부문과 사회적경제의 인지도를 향상하는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셋째, 충남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조직을 체계화하는 것과 재정지원의 확보,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발제를 정리하면서 최조순 박사는 이러한 정책을 위한 기반으로 지역자산 및 사회적경제의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충남도의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타 지역과 다른 비전과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토론 요약

발제 후 청중들 간의 다양한 토론이 있어 지면을 빌어 소개한다.

•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오늘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아이디어와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정책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유사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 각종 교육이라던가 벤처 대회 이러한 것들은 중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몰아놓고 몇 가지를 해야 할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도에서 출연할 수 있는 재원이든 뭐든 활용 가능한 자원을 내놓고 그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미치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일종의 틈새정책이죠.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사회적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부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틈새정책들을 선택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물론 도가 내놓을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한정된 자원 내에서 할 수 있는 틈새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어떤 지역편드가 만들어지면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겠지만 현재는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틈새정책을 선택해서 그것에 대한 집중을 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충남만의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

저는 고유자산이라는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싶냐면 충남이 사회적경제를, 그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사람들을 육성해내고 지원해주고 홍보해주고 판매해주는 고유시스템, 고유매뉴얼, 이것 갖고 있느냐 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것을 가져가야 정말 충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새로운 자원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충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독특하고 진심어리게 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사회적경제에는 인문학적, 철학적 가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저는 사회적경제의 배경은 엄청난 인문학적, 철학적 가치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경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인문학적, 철학적 배양, 토양없이 우리가 이 많은 시책들과 모델들을 건설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모래성에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역에서 어떻게 인문학적, 철학적 토양들을 나누고 배양하고 깊이 있게 다룰 것인가 그 부분에 들어가면 참 막막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은 서울로 가야한다는 수백년에 걸친 사대주의라고 해야할까요. 그런 것들. 지역분들이 갖고 계신 그리고 저 자신도 개인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아이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현

장에서,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다. 도시의 역동감,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에서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냈다는 것이 실제 우리 현장에서 가능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한편으론 굉장히 절망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개인적인 실천의 부분이 분명히 있어줘야 한다고 계속 생각하고 나름 고민하는 사람이구요. 이 사회적경제를 배양하는 여러 방법들 중에 가장 저변으로 깊이 들어가는 방법은 그 지역에서 교육집단, 인문학,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룹들, 그런 많은 그룹들과 만나고 논의하고 거기에서 싹트는 아주 깊이있는 단계부터의 출발점이 없으면 구호에 불과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에서 그런 그룹들과 어떻게 연대하고 소통하고 키워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개인적 실천의 문제들까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적경제에는 사회적혁신가가 있어야 한다.

사실 우리가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혁신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회혁신가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지역에 충남형사회적기업, 충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또 그런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협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지점이 아닐까 싶구요.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건데 아직 협동이 잘 안되는 이유는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덜 어려워서 협동이 잘 안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다른 한편에선 혁신가로서 사회적기업가들을 발굴하고 키워나가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이 정말 지역의 문제를 협동의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복돋워 나가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기 생태계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인데 사회적기업이 제도화되고 지역에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준비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걸 통합해 나가는 데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시사점

사회적경제 연구회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도내 인식을 확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자평한다. 특히 이미 사회적경제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도내에도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사회적경제 무엇이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공유하였으니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고민할 때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잘 활동하고 연대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